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분석\*

김현정\*\* · 박선화\*\*\*

## 논문요약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통일미래 사회를 대비한 '통일미래 우수인재' 영역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탈북청소년 우수인재'를 고등교육에 대비한 사회 및 교우관계 형성, 기초교육 및 소양교육을 겸비한 탈북청소년으로 규정하고서, 관련 담당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고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영재교육의 교사관찰·추천제도라는 선발제도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공공-민간 간 협력네트워크와 지역협력체 구축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및 협의회, 지역적응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와 지역협력체 구성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우수사례로 선발하여 홍보하여 지역 내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야 한다.

주제어: 탈북청소년, 통일미래 우수인재, 사회통합, 통일, 교육프로그램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남북하나재단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 제1저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플러스총괄사업단 계약교수

## I. 서론

현재 탈북청소년은 탈북, 무연고, 제3국 출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며, 이에 따라 교육기회로부터 유리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초교육 내 탈북청소년의 재학생 수는 2009년 1,143명에서 2015년 2,4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탈북청소년 중 북한출생 49.5%, 중국 등 제3국 출생 50.5%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이질적 배경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기초교육 내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중도탈락률 부분의 경우 2009년 6.1%에서 2015년 2.2%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제3국 체류 시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출생 후 입국한 탈북청소년 등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의 시각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들 탈북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북청소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수혜하지 못하는 집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류집단과의 기초교육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세부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한국 사회에 진입한 탈북청소년들은 정착, 생활적응,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혜택을 수혜하고 있으나, 주류집단과의 이질감과 사회적 배제, 남북 간 확연히 다른 교육내용으로 인한 학력 격차 등에 의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고등교육 진학지원을 위해 만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국공립대: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정부 50% 보조)하며, 이외에도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적응과 신변보호는 물론 각종 네트워크에 소속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공개한 2011~2013학년도 대학별 '탈북학생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된 탈북학

생 입학현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3년 간 전국 79개 대학이 뽑은 북한이탈주민학생은 모두 559명이며, 2013년 상반기 재적 중인 탈북대학생 1,147명 중 휴학생 190명(16.6%), 제적생 47명(4.1%)으로 전체 대비 약 20%가 휴학 중이거나 제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증가추세에 있어 공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기관 내에서 탈북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경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적응에 관한 연구<sup>3)</sup>, 둘째, 탈북청소년의 심리 및 정체성에 관한 연구<sup>4)</sup>, 셋째,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sup>5)</sup>, 넷째,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교육에 관한 연구<sup>6)</sup>이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와 학교적응과 심리분석, 사회통합과 정책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기초교육,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등에 초점이

- 
-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통일부 내 정착지원제도의 내용을 요약함. “북한이탈주민정책 정착지원제도.” 『통일부』 (온라인)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2> (검색일: 2016.04.14).
  -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 대학서도 이탈하다.” 『한국대학신문』 (온라인) 2015년 6월 1일,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7781>(검색일: 2016.04.14).
  - 3)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길은 배-문성호,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 김명산-이동훈,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0-1호, 2013, pp. 39-64
  - 4) 정향진,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선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1호, 2005, pp. 81-111; 이부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5-2호, 2012, pp. 23-57; 조정아, “탈북청소년의 경제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제17-1호, 2014, pp. 101-155; 신현균-김희경, “탈북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문제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15, pp. 337-357.
  - 5) 길은배,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청소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적 관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김선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 2009, 제8권, pp. 31-57; 김윤나,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기회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24권, 2014, pp. 101-132; 이기영-김민경, “한국가주 탈북배경청소년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분석과 함의.” 『동북아연구』, 제30-2호, 2015, pp. 93-129.
  - 6) 김현주, “탈북청소년의 공교육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성심사회학』, 제8집, 2003, pp. 211-236; 김태동,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탈북 후기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9호, 2010, pp. 277-296; 최경자-곽중문-채경화-박진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실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맞추어져 있다. 탈북청소년의 개인별, 수준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탈북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 한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우수 인재양성의 목표와 성과는 통일한국을 대비 사회통합을 이끄는 인재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우수 인재를 고등교육에 대비한 사회 및 교우 관계 형성, 기초교육 및 소양교육을 겸비한 탈북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고등교육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탈북청소년 우수 인재 프로그램의 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우수인재영역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미래에 대비해 남북한 청소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재형과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및 세부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통일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교육편입을 유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탈북청소년 인재,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나아가 통일미래 우수인재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현행 탈북청소년 교육프로그램과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부처별 교육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별로 분류하여 우수인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체계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일반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질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로, 탈북청소년의 잠재된 우수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지역하나센터,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우수인재 교육프로그램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프로그램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주최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 리더십프로그램, 남북대학생 ‘통준(통일·통합준비) PT 경진대회’, 착한(着韓) 메르켈 프로젝트,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 Harmony Optimum Potential Education) 프로그램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통일교육사업과 탈북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II. 교육대상으로서의 탈북청소년

### 1. 탈북청소년 우수인재의 정의와 분류

인재란 성과와 관련된 개념으로써 현재수준의 성과향상을 위한 능력, 미래를 위한 잠재능력으로써 역량과 결부되어 있다.<sup>7)</sup> 역량은 성과와 분명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능력과 차별성이 존재하고,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정의들이 성과와 관련되어 역량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단기간 동안에 변화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잘 변화하기 않고 오랜 동안에 걸쳐 영향을 발휘하는 능력이다.<sup>8)</sup>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 우수인재’는 현재까지 정부 혹은 연구기관에서 명확히 정의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각각의 주무부처 혹은 연구팀에서 개념적으로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준비가 된 탈북청소년’의 의미로 통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테면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에서는 ‘탈북청소년 중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사업을 운영하

7) 홍영란, “국가인재육성의 개념과 발전발안”,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제1-18호, 2008, pp. 8-9.

8) 임천순·고정완·최현영,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전략 분석 연구』, 서울: 교육부, 2013, p. 9.

며 해당 사업의 내용을 ‘탈북자를 위한 예비대학 운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지칭 주요용어

용어	설명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제 2조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길고 복잡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신조어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임	근거 법령 없음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일컫는 용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4조의2에서 '탈북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
탈북학생	탈북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을 일컫는 용어	근거 법령은 없으나 교육부에서 정책용어로 사용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탈북청소년도 이주배경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

출처: 전라남도교육청, 『2016 다문화교육 전문교원 기본과정 직무연수』, 전남 무안: 전라남도교육청, 2016.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통일미래 우수인재란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분단과 통일, 통일 후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 복합 역량을 토대로 상호 협력과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이다. 현행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준비와 진학 후 과정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전 단계에서 사회정착 및 기초교육 정착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가 공동체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으로서 우수인재를 관리·양성하는 동시에 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인재 영역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발굴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 또한 전공영역에서 주류집단 청소년과

공정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로 양성됨도 중요하며, 또한 이들의 이문화 경험, 실질적 사회문화 적응 경험의 영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현장 전문가들은 탈북청소년이 가장 기초단계인 사회정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우수인재’ 등 발전형 교육단계 지원으로의 이행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책의 과도기 단계에서 다소 현실과 정책이 괴리되더라도 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복합적으로 투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프로그램의 운영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전후를 대비하여 통일미래 우수인재의 개념을 정의하여 새로운 통일세대 대비 청소년상을 정립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실태 분석

통일부의 탈북청소년 지원은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한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한 정책 수립과 조정을 비롯하여 학력인정, 취학·편입학 등 교육지원, 자격인정, 직업훈련, 취업알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지도·감독,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정착지원시스템 관리·운영, 거주지에서의 보호, 전문상담사 육성·운영 등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였고, 본 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장학, 교육·보호시설 지원, 통일 미래리더 육성, 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교육·장학사업은 장학지원, 탈북대학생 해외연수지원, 화상영어교육지원, 학습지원,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보호시설지원사업은 대안교육시설, 방과 후 공부방시설,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운영 등을 지원한다. 통일 미래리더 육성사업은 진로진학 지도, 예비대학 운

영, 대학생 리더 육성, 통일 미래리더 네트워크 구축,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을 지원한다. 정착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정착지원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한다.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을 제외한 진로진학 지도, 예비대학 운영, 대학생 리더 육성, 통일 미래리더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 탈북청소년의 고등교육 진학과 졸업 및 향후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장학사업의 탈북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이 글로벌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외국어능력의 향상과 넓고 다양한 세계의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위 프로그램들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탈북청소년에게 진로진학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적응능력과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남한대학생과 팀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전문가와의 멘토링, 해외연수와 기업인턴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은 남한대학생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탈북청소년을 사회에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시키고 통일시대 미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한다. 매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를 총괄하며, 각 시도 교육청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탈북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탈북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 교육청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 지원계획에 탈북학생의 지원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청소년의 교육기회보장과 사회정착지원을 목표로 탈북청소년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탈북청소년 적응단계별 지원, 탈북청



소년 교육지원,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교육지원 정책연구 및 기초연구 사업이 있다.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계획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사업방향 중에 하나인 맞춤형 교육강화는 탈북청소년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지원이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HOPE : Harmony Optimum Potential Education)은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인문학, 체육, 문화예술 등 각 특정 분야에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탈북학생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 1:1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탈북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교사, 전문가 등의 멘토링을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탈북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탈북학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포함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문화학생지원과 탈북학생지원의 담당자를 분리하여 지원계획도 대상별로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계획수립과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Ⅲ. 우수인재 프로그램 사례 심층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남북하나재단,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지역하나센터, 지역 통일교육센터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내 FGI는 한 차례 대면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탈북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도 및 지원방향에 관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회신된 자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교육프로그램 세부현황과 해당프로그램의 담당자 FGI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교육프로그램 세부현황 및 이들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 제시하였다.

## 1. 표적집단 인터뷰 결과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프로그램의 각 담당자들은 본 연구의 FGI 질문지를 통해 프로그램 유형을 정착, 사회통합, 언어, 직업기술, 전공, 고등교육 준비, 인성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응답하였다. ‘남북대학생 통준 PT 경진대회’ 담당자 A,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담당자 B1, B2, ‘통일을 준비하는(통준) 청년리더십프로그램’ 담당자 C,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담당자 D가 질문에 응하였다. 담당자들에게 구조화된 면접지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면접 혹은 이메일 면접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동 조사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표 2〉 ‘고등교육 준비 역량’ 및 ‘다양성’지향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 인터뷰(FGI) 결과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정착을 위해 목적을 두어야 할 사항	
A	한국사회의 이해, 대인관계 형성, 자기정체성 이해, 갈등관리/갈등해결능력을 배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수집, 습득 및 활용능력을 증진, 사회적 시민역량을 형성/이해, 주민민과의 소통능력 증진, 민주시민의식, 질서의식
B1	한국사회의 이해, 사회적 시민 역량을 형성/이해
B2	한국사회의 이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수집
C	한국사회의 이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수집, 사회적 시민 역량을 형성/이해
D	한국사회의 이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수집, 사회적 시민 역량을 형성/이해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기초교육 정착 지원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목적	

A	학내 교우관계형성 및 개선, 외국어능력향상, 수리/과학능력향상, 기술 혹은 직업능력향상, 정보습득능력향상, '학습하는 법'의 학습능력향상, 전반적 기초교육능력향상
B1	학내 교우관계형성 및 개선, '학습하는 법'의 학습능력향상, 전반적 기초교육 능력 향상
B2	전반적 기초교육 능력 향상
C	외국어 능력 향상, 전반적 기초교육 능력 향상
D	외국어 능력 향상, 전반적 기초교육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고등교육진학 측면 지원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목적	
A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기초교육능력 향상,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기술 및 정보습득 능력향상,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외국어능력향상, 사회참여 역량향상, '고등교육 학습하는 법'의 학습능력향상
B1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기초교육능력향상, '고등교육 학습하는 법'의 학습능력향상
B2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기초교육능력 향상, 사회참여 역량 향상
C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기초교육능력 향상
D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기초교육능력 향상
탈북청소년의 고등교육 진학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프로그램 분야	
A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교육, 대인관계,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창의적 사고력, 영어 및 제2외국어, 한자, 경영철학, pc업무
B1	논리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기획실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상용영어회화, 시장경제의 이해
B2	직장관, 기업체 현장실습
C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교육, 문제해결기법, 영어
D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교육, 문제해결기법, 영어
해당 프로그램이 다양성 인재양성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목적	
A	지속적 자기개발, 전공 및 진로 탐색, 고등교육 진학 후 적응
B1	자기정체성 확인, 지속적 자기개발, 전공 및 진로 탐색, 고등교육 진학 후 적응
B2	지속적 자기개발, 전공 및 진로 탐색, 고등교육 진학 후 적응
C	상호 간 이해, 자기정체성 확인, 지속적 자기개발, 전공 및 진로탐색, 고등교육진학 후 적응
D	상호 간 이해, 자기정체성 확인, 지속적 자기개발, 전공 및 진로탐색, 고등교육진학 후 적응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효과, 문제점 및 제언	
A	효과(기초학습역량 향상, 남북한 학생 간 협력, 논리적 사고 능력 향상) / 문제점(정책 수혜

	자로서의 특별한 권리의식을 갖게 됨) / 개선방향(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요구됨)
B1	효과(탈북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습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줌) / 개선방향(탈북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B2	효과(관심진공에 대해 경험하며, 대학 커리큘럼에 대해 학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음) / 문제점(프로그램 지원자 수의 감소하는 것은 행정체계의 복잡성과 홍보부족 탓이 큼), 개선사항(① 홍보가 많이 필요함. 학교담당교사의 (공문이 많음 등) 업무가 많아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② 멘토선생님이 탈북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멘토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학생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의 어려움은 있음. ③ 담당자가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 모니터링, 진로상담 등 관리를 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 시도교육청에서 잘 운영하지 못하여 다시 센터로 사업을 재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C	효과(남북한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통합에 가까이 간다는 시사점) / 문제점(탈북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습수준 등이 매우 다양하여 획일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제공했을 시에도 개별차이가 커 효과가 적음) / 개선방향(소수의 엘리트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는, 미래리더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인 필요하다고 생각함)
D	효과(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어학연수와 취업연수로 구성되어 외국어능력향상 및 진로선택(직업경험)에 도움이 됨) / 문제점(프로그램 기간이 상이하고 프로그램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음) / 개선방향(취업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만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음. 따라서 목적을 구분하여 어학연수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되는), 출국 전 오랜 시간 국내 영어교육을 통해 조건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질문지 응답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선 전문가들에게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의 일반적 교육목표에 관하여 단계별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첫째, 전문가들은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정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목적으로 ‘한국사회의 이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수집’, ‘사회적 시민역량을 형성/이해’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탈북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이 기초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목적으로 ‘학내 교우관계 형성 및 개선’, ‘학습하는 법의 학습능력향상’, ‘전반적 기초교육 능력 향상’, ‘외국어 능

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 기초교육 능력 향상' 등을 들고 있다. 셋째, 전문가들은 탈북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이 고등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목적으로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기초교육능력 향상, '고등교육 학습하는 법'의 학습 능력 향상, '사회참여 역량 향상'을 제기한다. 넷째,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진학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목적으로 '논리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기획실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상용영어회화', '시장경제의 이해' 및 '직장관, 기업체 현장실습',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교육', '문제해결기법', '영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이 다양성 인재양성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목적에 대한 질문에 5명 모두 '지속적 자기계발', '전공 및 진로 탐색', '고등교육 진학 후 적응'을 응답한 가운데, B1은 '자기정체성 확인'을 C와 D는 '상호 간 이해'를 답한 점이 흥미롭다. B1이 답당한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은 향후 진행하며 고등교육 지원 혹은 기초교육 지원 유형으로 목적을 맞추어야 할 프로그램 과정을 담고 있다(2항에서 상세설명). 따라서 교육 시행목적도 '자기정체성 확인'을 강조함이 마땅하다. 반면 C와 D가 답당한 통일미래 우수인재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통준 청년 리더십프로그램' 및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은 향후 관계성 보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효과, 문제점 및 제언에 대해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A는 자신이 답당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기초 학습역량 향상, 남북한 학생 간 협력, 논리적 사고 능력 향상에 있으나, 정책 수혜자로서의 특별한 권리의식을 갖게 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동 프로그램이 심층분석(2항)에서 '통일미래 우수인재' 역량 강화에 맞춤형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이 취약하다 판단되는 부분과 같은 의견임을 알 수 있다.

B1은 담당 프로그램의 효과로 탈북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습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할 사항으로 탈북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B2는 개선사항으로 ①홍보, ②멘토선생님이 탈북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 등을 들고 있다. 즉 프로그램 자체의 개선도 중요하나, 부가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C는 동 프로그램이 남북한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통합에 가까이 간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의 엘리트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는, 미래리더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인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유형별 구분을 통해 이분석 목적과 성향을 지향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D는 담당 프로그램이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어학연수와 취업연수로 구성되어 외국어능력향상 및 진로선택(직업경험)에 도움이 되나, 프로그램 기간이 상이하고 프로그램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 상황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취업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만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음. 따라서 목적을 구분하여 어학연수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영어를 잘 하지 않아도 되는), 출국 전 오랜 시간 국내 영어교육을 통해 조건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등교육 준비 역량’ 및 ‘다양성’ 지향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 인터뷰(FGI) 결과에 관한 질문 응답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탈북청소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주요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교육프로그램 시행 세부현황

### 1)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2012년~2015년 제1기~제4기까지는 우수탈북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HOPE)으로, 2016년부터 제5기까지는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5회 진행되어 왔다. 동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의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1:1 대면 접촉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기도 하는 속성이 있다.

〈표 3〉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업추진 계획 내용
주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참가대상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탈북학생 *탈북학생은'부모 중 1인이 북한이탈주민이며 북한 혹은 제3국 출생자'를 뜻함
프로그램 운영목적	-수학, 과학, 인문학, 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을 발굴하여 지원- 지원 분야, 잠재력 정도,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재능기부자)와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진행-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을 미래 인재로 육성
프로그램 주요내용	HOPE는 각 분야의 재능 혹은 꿈을 갖고 있는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재능기부자(멘토)를 일대일(1:1)로 연결하여 학생(멘티)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각 분야별로 멘티는 8개월 동안 월 2회~4회(회당2시간 이상) 정도 멘토의 지도를 받게 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내부자료

해당 프로그램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전형에서 지원자 서류 심사(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를 거쳐 2차 면접심사로 선발기준에 근거, 한국교육개발원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초분야, 언어분야, 직업분야, 전문분야 등에서 참여를 접수받아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각 분야별로 멘티는 8개월 동안 월 2회~4회(회당 2시간 이상) 정도 멘토의 지도를 받게 된다.

따라서 동 프로그램의 운영은 탈북청소년의 참여와 함께 전문가 모집 추진 과정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1 멘토링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 참여 탈북학생 모집 이후 전문가 멘토, 즉 우수탈북학생 협력전문가(재능기부자)

의 모집이 중요한 것이다. 전문가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별 전공 석·박사 학위 이상 보유했거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대학 혹은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제한되며, 전문가 모집방법은 먼저 모집된 탈북학생의 거주지역 및 전문영역에 따라 일반공지를 게시하며, 동시에 각 지역 대학에 협조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진행된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교육청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자 모집과 대학연결망을 통한 전문가 모집이 원활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방식인 것이다.

“교사 추천으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하나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개별로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참여정도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일반 탈북학생들보다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멘토 선생님의 매칭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편이구요. 매칭 선생님과 맞지 않을 경우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B1)

3월 초 교육부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며, 교사 추천으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남북하나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개별로 직접 신청하기도 한다. 2016년은 3: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서류심사 때에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지원서를 받아서 심사 평가하는 방식이며, 다양한 전공 영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학, 과학 등의 영역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보컬 등과 같은 전문 영역은 면접과정 등을 녹화하여 심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진행 중 이전에는 ‘방학캠프’를 통해 국내 주요 시설을 탐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이해를 도움을 주었고,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진로상담프로그램 참여로 이를 대체하였다.

“진로내용이 포함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방송국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하나센터의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1)

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 영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한 다수의 전공 지망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HOPE 프로그램 참가자의 지망 영역은



글쓰기, 생명과학, 중국어, 안무, 요리, 수학, 패션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확산되어 왔다. 동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탈북학생의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전문영역 학습이며, 전문가의 전공지식 학습, 고등교육 학습법의 학습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진로지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예를 들어 인문학 신청자의 경우 매달 책 1권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내용이며, 요리사의 경우 요리학원 강사 선생님과 함께 제과제빵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전문가 선생님의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 멘토링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지요. 활동영역에서 전문가로 불리는 석·박사급 전문가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호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멘토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B1)

“활동의 결과물로 교육활동 결과일지를 모아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 결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B1)

동 프로그램에 HOPE 1기~3기 참여한 탈북학생 주○○은 중국○○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한 윤○○ 멘토로부터 중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한어수평고시(HSK) 6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중국어 활용능력이 신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 프로그램에 HOPE 3기 참여한 탈북학생 이○○은 장래희망은 치과의사이며, ‘글쓰기’ 영역에 지원하여 참여 만족도를 아래와 같이 응답하고 있다.

## 2) 남북대학생 통준 PT 경진대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주관하는 ‘남북대학생 통준 PT 경진대회’는 2011년~2014년 ‘남북대학생 글로벌평화·통일 프레젠테이션 대회’, 2015년 ‘글로벌 착한(着韓) 인재 PT 경진대회’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6년 ‘남북대학생 통준(통

일 통합 준비) PT 경진대회: 통일그림을 그리다'로 진행되었다.

〈표 4〉 남북대학생 통준 PT 경진대회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업추진 계획 내용
주관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참가대상	1명 이상의 탈북대학생이 포함된 남북대학생 조별 참가
프로그램 시행목적	-남북한 청년의 상호이해와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통일준비 리더로서 준비와 역량 강화 -남북한 대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문제점 발견 및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통 및 협업 능력 강화
프로그램 주요내용	예선대회를 통해 실시한 전문가 발표향상 코치를 토대로, 본선에서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을 넘어 연극, 노래, 영상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발표를 선보임. 남북한 대학생들은 약 5개월 동안 최종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어울려 미래 통일 주역으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을 배양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작은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 나아감.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부자료

동 프로그램은 5월 경 1명 이상의 탈북대학생이 포함된 남북대학생 조별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8월 경 예선 및 10월 경 본선 경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2016년에는 총 11팀(49명)의 남북대학생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쳤다. 본선 경연을 통해 2016년부터는 국회의장상(대상, 1팀)이 신설되었으며, 이하 통일부장관상(최우수상, 2팀),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이 시상되며 총 9팀에 대해 총 1,3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2016년 본 대회에는 49명의 참가학생 중 19명의 탈북청소년과 30명의 남한학생이 참여하였다. 동 프로그램 담당자에 의하면 참여 탈북청소년들은 주제선정과 방법론, 진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 학생들은 간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을 한 북한 학생들의 팀장역할을 수행하기에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지요. 대학생들이 팀 활동으로 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하는 폭넓은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

다.”(A)

담당자는 탈북청소년은 이문화 경험을 통해 남북 두 사회를 비교 가능한 점,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한 점을 가지고 있어 팀을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창의적 주제 선정 및 내용 구성, PT 제작과 발표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 자기개발 능력 향상, 진로 및 전공 탐색, 참가자들의 고등교육 학습법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 3) 통일을 준비하는(통준) 청년 리더십프로그램

2016년 통일을 준비하는(통준) 청년 리더십프로그램은 신설 출범하였다.

〈표 5〉 통준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업추진 계획 내용
추진기관	-국내: 남북하나재단, 아산나눔재단, 통일과 나눔, 대학 및 전문가 등 -국외(미국): 한미나눔운동(KASM), 오픈소사이어티재단 등
참가대상	탈북대학생(2학년 이상) 및 2016년 2월 졸업생 혹은 대학원 진학생 등 20명
프로그램 시행목적	-통일준비를 위한 탈북 청년지도자 육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미래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남북주민 통합과 북한사회 전반적 재건에 선도 역할을 할 인재 육성
프로그램 주요내용	1단계 ‘리더십 기초함양’, 2단계 ‘글로벌 리더십 육성(위싱턴리더십프로그램(WLP))’, 3단계 ‘통일캠프 및 멘토링’, 4단계 ‘인턴십 및 사후관리(활용)’이와 같이 4개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각계기관 및 전문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짐.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부자료

동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리더십 기초 함양’은 약 두 달에 걸쳐 매주 토요일 6시간, 5회의 전문가 초빙 강좌 및 토론, 협업 수업과 한차례의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한다. 2단계는 ‘글로벌 리더십 육성(위싱턴리더십 프로그램(WLP))’으로 3주간으로 구성된 내용이다. 한미나눔운동(KASM)이 운영하며 미국 현지 방문 및 조사연구로 구성됨. 주요기관 방문, 우수 리더 특강 및 세미나, 발표 및 토론 등 워크숍, 빈민 구호 단체 방문 및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3단계는 2개월 간 ‘통일캠프 및 멘토링’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유관기관 협조 하 진행되며 책임교수 멘토링, 국내·외 관심분야 인턴연수 매칭, 통일캠프로 구성된다. 3단계를 수료하고 최종평가를 거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통일엘리트 선정하며, 이후 4단계 3개월 이상 인턴십 활동을 진행한다. 동 프로그램 수료자는 반드시 4단계의 활용 및 사후관리 중 1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 받는다. 동 프로그램 참여자는 수료자에 대한 재단 장학금 우선 지원, 참여기간(1~3단계) 동안 재단 기부금 연계 활동비 지급(회당5만원 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홍보대사, 홍보기자로 활동 기회 부여(작성기사 게재 채택 시 원고료 지급) 그리고 정부·공공기관, 우량기업 등 채용정보 우선 제공 등의 특전을 부여받는다.

2016년 제1기 통준 리더십 프로그램 내 1단계 세부안을 살펴보면 동 프로그램의 1단계 ‘리더십 기초 함양’은 전문가 초빙을 통해 우리사회 내부에서의 탈북청소년의 정체성, 남북한 사회에 대한 재인식, 소수자집단과 주류집단 구성원 간 상호관계관 관련한 세부안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에서는 매 세션마다 팀 활동을 실시한다. 미국 교육기간 방문 예정인 기관 등에 대한 조사 발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출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PPT 발표하였다. C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3~4개 팀이 활동하였고, 팀별 책임교수를 지원하지 않은 대신 멘토를 지원하였으며, 멘토 1명당 3~4명의 학생을 멘토링하였고 관련 분야의 교수님이 아닌 전문가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이외의 통일미래 우수인재 프로그램과는 달리 1기 참여 탈북청소년은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프로그램은 자동차와 화학 이공계열, 간호학, 사회복지,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남북학생 교류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해외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C)

탈북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문화 경험 및 분단국가에서의 적응경험을 잠재 능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글로벌 리더십 역량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프로그램

내 2단계에서 미국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연구, 견학 시찰, 토론으로 구성된 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2단계에서는 대표, 인턴, 재단 담당자 등 3명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소감문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따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단계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민주시민의식과 리더십이라고 규정하여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6년 제1기 통준 리더십 프로그램 내 2단계 세부안에는 민주시민의식과 리더십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천안문 학생운동’, ‘미국의 대북정책’, ‘한국민주화 경험’, ‘동구권 체제변화경험’ 등 각 국의 격동기 체제변화 혹은 민주화에 대해 학습하며, 이와 관련하여 미 국회의사당, IMF, World Bank를 방문한 후기를 글쓰기 한 후 토론 시간을 갖는 등 체계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류사회와의 관계성 향상을 위해 남한 학생을 참가시키고는 있으나, 남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시행 초기라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담당자에 의하면 이번 1기 수행 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추천으로 2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2단계에서 박사급 참여자가 남한 구성학생으로 참여하였으며, 남한학생은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참여하였다고 한다. 2016년 제1기 통준 리더십 프로그램 내 3단계 세부안은 ‘통일캠프 및 멘토링’으로 구성되며, 팀별 과제를 수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준비하며 상호 교류를 진행한다. 담당자는 1기 프로그램 진행 중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학생은 없었으며, 담당자에 의하면 2명의 학생이 2단계에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다른 해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이유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국내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으로 2단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3단계 교육에 다시 참여하게 하였다고 한다.

“3단계에서는 개인별 과제, 팀 프로젝트 과제를 각각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자기표현능력 함양을 역점에 두어 자기소개서, 프레젠테이션 능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멘토의 참석지도를 2개월 동안 실시 하였고요. 이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데(2016. 10월 현재) 탈락이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C)

하지만 남한 학생의 참가자 수가 북한학생에 비해 현저히 적어 팀 구성 시 모든 팀이 혼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남한 학생의 참여 규정을 개선하여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 중복수혜에 대한 배제가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해외연수에 중복 지원한 학생에 대한 배제는 있었다. 2016년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라 현재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을 확실히 정비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모집함이 강조된다.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예산투자 대비 효용이 크지 않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버거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2013년 12월 교육부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대상 WEST 프로그램’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15년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대상 2015년 WEST 제1기 12개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2016년에는 ‘탈북대학생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은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특히 ‘탈북대학생 WEST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에 미국 이문화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남북한 대학생의 교류 기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통일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있다.

〈표 6〉 한·미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업추진 계획 내용
추진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참가대상	탈북대학생 6명
프로그램 시행목적	탈북대학생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주요내용	어학연수(4개월)+인턴취업(6~13개월)+여행(1개월) = 최대 18개월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부자료

동 프로그램은 매기 100명 정도의 일반학생 참가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며, 동 제도 내 탈북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비율로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정책 개념 하 프로그램 운용사례라 할 수 있다. 참가학생이 개별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구성원을 리드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자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정도는 차이는 있으나 적극적인 편이라 한다.

“탈북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학생들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다른 형편입니다. 면접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원한 학생들은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어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D)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로, 항공, 패션, NGO, IT, 금융, 연구소, 공공기관, 미디어, 언론, 법률,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 취업이 수월하며, 한·미 양국 간 정부사업이므로 미국 내 기업에서 인턴 구직에 호의적인 편이다. 미 국무부가 추천한 스폰서 기관이 참가자의 어학연수 및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기업체 등에 안정적인 양질의 인턴 구직을 주선하고 미국 현지 정착과 생활을 지원한다. 미국 내 WEST 주재원, 재외공관 등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생 관리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탈북대학생의 경우 영어자격증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내 사전교육 단계가 없으므로, 본인의 언어능력에 따라 프로그램 활용 정도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동 프로그램은 외국어 능력 향상, 취업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만 학생들의 언어능력에 따라 교육결과 측면에서 큰 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기업에서 인턴을 할 경우 ‘외국어 향상’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제도 상의 변수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는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을 충족한 학생이 참여해야 할 텐데, 매년 이를 충족하는 탈북청소년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 IV. 탈북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 1. 프로그램 선발제도 개선

‘통일미래 우수인재’ 프로그램 선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제도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수인재 교육 및 영재교육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영재교육에서는 선발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8년 제2차 영재교육 종합계획에서부터 영재성 검사, 학문적성 검사,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한 선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사관찰·추천제는 교사가 잠재적 재능을 지닌 학생을 장기간에 걸친 관찰을 통하여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선발제도는 지필고사 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제도가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과열한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Baldwin(1987)과 Frasier(1990)등은 미국에서 IQ를 선발의 커트라인으로 사용할 경우 흑인학생, 경제적으로 불우한 처지의 학생, 다른 문화 출신의 학생들이 영재로 판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9)</sup> 탈북청소년이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서 소외계층 영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소외계층 영재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가정의 심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음으로 인해 영재교육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영재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존재하는 잠재적 영재성을 지닌 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10)</sup> 타 그룹에 비해 더욱 선발 배제 상황에 처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해당 교사에게 공지, 각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 관찰·추천이라는 선발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관찰·추천제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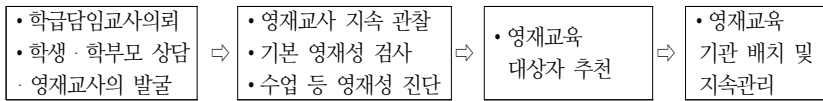
9) 박숙희, “소외계층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교육』, 제8-3호, 2009, p. 9.

10) 박숙희, “소외계층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교육』, 제8-3호, 2009, p. 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의 기본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영재교사의 관찰·추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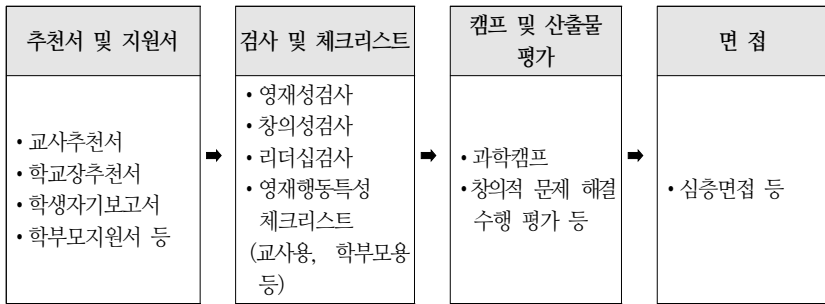
출처 : 안정현·박선화·윤성혜·임연희, 『교사관찰추천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부산 :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2013, p. 105.

영재담당 교사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영재대상자 풀을 구성한 다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기본 영재성 검사, 수업 등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영재성을 진단하고 대상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관찰기간동안 영재교사는 판별도구로 수업참관, 담임교사 및 학생 면담,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등 영재성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영재교사가 작성한 프로파일을 토대로 학교 내 추천위원회에서 각 영재교육기관을 추천할 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학생들 중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본 기본과정은 단위학교의 관찰·추천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발모델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교사 관찰·추천방식 개선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기본과정을 토대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선발방식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한 영재선발과정에서는 교사의 관찰·추천의 비중이 높으며 지필검사 등의 검사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단위학교 교사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성적 우수 학생을 추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잠재된 영재성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는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판별검사 도구가 제시되어야 하며, 교사의 관찰·추천과정에서도 영재판별을 도울 수 있

는 검사지 등 객관적인 도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사 관찰·추천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들은 대부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들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선발도구를 개발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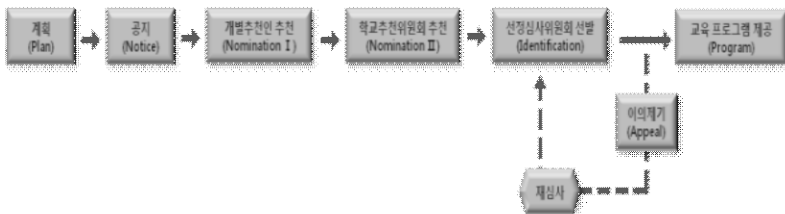
〈그림 2〉 교사 관찰·추천제 선발과정의 준거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사관찰·추천제 바로알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p. 20.

최근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은 효율적인 교사관찰·추천제 업무지원과 담당교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 : GED, 이하 GED 시스템)<sup>11)</sup>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GED를 활용한 교사관찰추천제 선발과정



출처 : 박태우, 「GED를 활용한 교사관찰·추천제」, 『2015학년도 초중등 영재교육 담당자 선발과정 직무연수 자료집』, 부산: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2015.

11)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ged.kedi.re.kr/>

GED 시스템은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고, 선발전체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있다. GED 시스템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17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구축·관리한다.

단위학교의 담당교사의 선발계획 수립에서부터 학생추천과 학생 본인의 지원서 작성, 학교추천위원회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최종 선발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을 통한 교사관찰·추천제 운영은 2015년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재 담당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과문제가 해소되고, 관찰 및 평가 결과의 관리가 편리해지며 접근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많은 양식 작성과 절차의 다단계로 인한 행정 효율성의 저하를 방지하고 신속한 선발 업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교사 등 추천인들에게도 학생의 영재성을 수시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통일부는 교육부와의 정부 부처 협력을 통해 해당 선발과정에서 탈북청소년이 누락되지 않으며, 나아가 통일미래 우수인재라는 사회문화 영재의 선발 영역을 신설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관찰·추천제도 상 탈북청소년에 대한 강조 지원 그리고 통일미래 우수인재라는 사회문화 영재의 선발 영역 확립을 통일부 및 교육부 협력 과정 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교육 프로그램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탈북청소년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발전방안으로 공공-민간 간 협력제도 구성과 탈북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통일미래 우수인재영역의 프로그램은 남북한 학생의 관계성, 탈북청소년의 리더십 함양 등 항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고 있으나, 융복합

영역으로의 확대 및 이문화 경험에 대한 우수 역량 영역 개발 등으로의 발전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탓에 ‘통준 PT 경진대회’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6회가 진행되었음에도 기존의 북한학, 정치학 등 인문사회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주제에 머물러 있으며, 이외의 프로그램 사례도 영어 습득, 토론, 프리젠테이션 등의 복합 구성에 그치고 있다.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프로그램은 창의융합캠프, R&E(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 등 참여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간 협력 제도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융합 R&E 프로젝트학습 프로그램이란 탈북청소년을 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제간 융합교육과 R&E 프로그램, 프로젝트학습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영역별 남북한 우수학생들이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교수(연구원)진과 교사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전문가의 밀착교육을 받고 창의적 연구성과를 산출하는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 우수인재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다양한 공공기관, 나아가 민·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 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하나센터를 연계하여 전자의 역내 산·관·학 자원 연결 기능과 후자의 탈북청소년 정착지원기능을 매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의 업무와 지역적응센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 업무주요내용의 비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표 8>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 업무 비교

영역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지역적응센터	
	주제	세부내용	주제	세부내용
초기정착 지원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거주지 안내,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등 공동생활 시설 운영	일상생활 교육	실생활 기본 사항 및 제도 안내
			지역사회 이해	지역 현황, 정착지원 기관, 지역 내 주요기관 안내
진로탐색 과 직업준비	취업지원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직자와 고용주 윈스톱 연계 서비스	근로익육증진	생활점검 및 설계 취업 동기와 목적 정리
	취업역량제고	취업역량제고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직장생활 이해	직업의 종류와 필요성, 직장문화 소개
	사회적기업, 영농,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영농, 창업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직업훈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탐색 및 방문,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훈련
생활정착 및 인생설계 지원	생활안정 지원	생필품 지급, 방문상담 등 적응지원 의료지원 출산비용, 긴급 생계비 보조 쉼터 지원	개인역량 강화	자기이해, 의사소통 향상, 사회 및 문화 체험
			인생설계	정착 성공사례 소개, 초기상담, 전문가 상담
청소년 교육지원	교육 프로그램	탈북학생교육 프로그램, 예비대학 등 개발 및 운영, 각종 장학금 지원		
	대안교육	대안교육시설, 방과후 공부방 운영		
	생활실태 조사 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 생활실태 조사 분석		
	남북한 상호이해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민간단체 정착지원 활동 및 문화, 체육 행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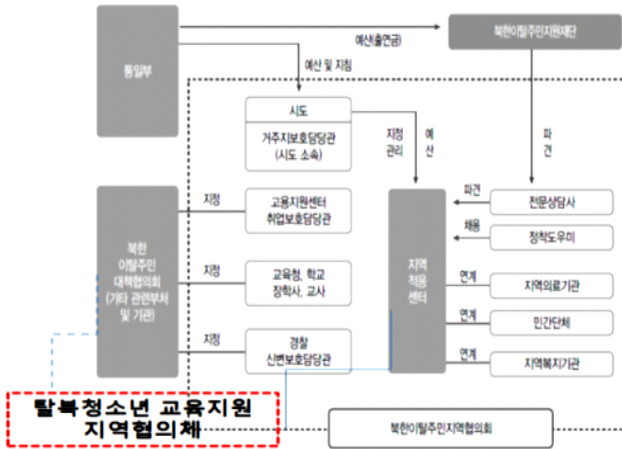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서울: 통일부, 2014, pp. 49-68.

〈표 14〉 내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와 지역적응센터 업무를 비교하면, 초기 정착지원,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그리고 생활정착 및 인생설계 지원 측면에서 중앙과 지역이 담당할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지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만이 담당업무를 시행할 뿐, 지역적응센터는 딱히 주요 세부업무로 부과되지 않은 채 북한이탈주민 생활적착의 일면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중앙-지역 간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체계에 분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종교민간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탈북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요 업무성과에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은 누락되어 있다. 동 협의회는 주로 의료지원, 취업지원, 지역사회 이해 지원, 영유아, 아동, 어르신 등에 대한 학습 및 정서지원, 문화체험, 정착지원, 남북주민 간 교류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지원의 일부분에 중고생 학습지원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발적 일부에서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 협의회를 통해 역대 탈북청소년들의 생활밀착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동시에 중앙부처가 진행하는 우수인재프로그램에의 홍보 및 독려가 가능하다. 지역 내 대학, 통일교육센터, 하나센터, 기업, 지자체 등을 매개한 지역 협의회를 통해 인적 자원 공유, 시설 이용,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기술 및 지식 공유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체구성에 대한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자의 의견 또한 긍정적이다.<sup>12)</sup>

12) “지역을 대표하는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대학생과 지역민에 대한 통일교육과 탈북자에 대한 통일교육이 함께 시행되는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각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 하나센터가 주관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한 업무 협조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저희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 하나센터와 협력하여 대학생과 지역 탈북청소년 간 멘티-멘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아무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 기초교육 도움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그림 4>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지역협의체 체계



출처: 국회예산처(2016) p.9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현재 통일부 산하 지정단체 중 지역에 위치한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및 협의회 그리고 지역적응센터는 각각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이들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역내 대안학교 관계자가 참가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 3.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제안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은 III장에서 정리된 내용 이외에도 대학,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다수로 진행되는 바는 긍정적이거나 이를 관리할 메커니즘은 물론이고 통계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까닭에 탈북청소년의 일부에게 지원이 중복 집중되거나, 지원의 사각에 처한 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프로그램의 사회적 목적

을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충족하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유형별로 우수사례 프로그램 선정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사회정착형, 기초교육형, 고등교육 준비형 그리고 통일미래 우수인재형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지원을 공모하여 진행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 지원정책방향에 맞추어 영역별 목적과 속성에 맞추어 선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 지원제도를 선발하여 육성해 왔다. 해당 사업은 각 교육청 단위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한 이후 전국 단위에서 다시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진행된다. 2010년~2011년 동안은 교육목적별, 2012년에는 유형별, 2013년 이후에는 초·중·고 및 연구회 등 단계별 구분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왔다. 매년 각 영역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약 12~1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통일부는 지역 사회공동체의 사회통합을 담당하는 기관, 대학 등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우수 유형을 발굴하고, 이의 우수 시행사례를 각 기관에서 모범사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효율적이다.

지역의 민간기관, 지역하나센터, 대학에서는 멘티-멘토제, 기초교육지원야학, 통일캠프 등의 형태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심리치료, 교육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선정된 멘토링 제도만 하더라도 친구 멘티-멘토제, 지역사회 멘토링, 사제 간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습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교육부 지원 사례 이외의 영역에서 정책발전 단계 유형별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선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착형과 기초교육형 유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고등교육 준비형은 대학에서 지원을 받아 운용하며, 통일부 및 산하기관은 ‘통일미래 우수인재’교육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주도해 나아갈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회정착형 및 기초교육형 유형 프로그램은 거



주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시행됨이 접근성과 효율성에서 강점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정착이 어렵거나 기초교육에서 뒤떨어지고 있어 이를 지원받아야 할 탈북청소년이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과정에 진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탈북청소년 지원교육프로그램은 생활밀착형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또한 지역공동체 내 탈북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영역에 위치한 기관에서 수월하게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기적 목표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지향하고 이성적이며 다원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통일미래 우수인재’유형은 전국단위에서 해당 영역 우수인재에 관한 뚜렷한 선발기준에 의해 모집된 재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부가 부단한 연구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사회정착형, 기초교육형 및 고등교육준비형 교육지원프로그램은 민간과 지역, 대학에서 현재와 같이 운용하되 통일부가 우수사례 선발 및 확산을 통해 지원 관리하며, ‘통일미래 우수인재’유형은 지금과 같이 통일부에서 주관하되 프로그램 효율성을 위해 세부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발된 프로그램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지역 내 탈북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며, 나아가 우수사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이 생활 근거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적극적 지원을 수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길은배·문성호,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
- 길은배,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청소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적 관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김명선·이동훈,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0-1호, 2013.
- 김선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 제8권, 2009.
- 김윤나,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기회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24권, 2014.
- 김태동,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탈북 후기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9호, 2010.
- 김현주, “탈북청소년의 공교육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성심사회학』, 제8집, 2003.
- 박숙희, “소외계층 영재교육.” 『영재와 영재교육』, 제8-3호, 2009.
- 박태우, “GED를 활용한 교사관찰·추천제.” 『2015학년도 초·중·고등학교 교육 담당자 선발과정 직무원수 자료집』, 부산: 부산광역시시영재교육진흥원, 2015.
- 신현균·김희경, “탈북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문제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2-11호, 2015.
- 안정현·박선화·윤성혜·인연휘, 『교사관찰추천제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부산: 부산광역시시영재교육진흥원, 2013.
-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이기영·김민경, “한국거주 탈북배경청소년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분석과 함의.” 『동북아연구』, 제30-2호, 2015.
- 이부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5-2호, 2012.
- 임천순·고장안·최현영,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전략분석연구』, 서울: 교육부, 2013.
- 전라남도교육청, 『2016 다문화교육 전문교원 기본과정 직무원수』, 전남 무안: 전라남도교육청, 2016.
- 정향진,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선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1호, 2005.
- 조정아, “탈북청소년의 경제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제17-1호, 2014.
- 최경자·곽종문·채경화·박찬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서울: 통일부, 2014.

한국교육개발원, 『교사관찰·추천제 바로알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홍영란, “국가인재육성의 개념과 발전발안.” 『창의적 인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18, 2008.

Baldwin, A. Y., “I’m black, but look at me, I am also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vol. 31, no. 4, 1987.

Frasier, M. M.. The equitable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Boston, MA. 1990.

## Abstract

Analysis of Training Program for Talented Young Defectors from North Korea

Kim, Hyun-Jung\* · Park, Sun-Hwa\*\*

This study presented a field of 'excellent talents for future unifi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ducation supporting program which helps defectors from North Korea. 'Talented young defectors' are defined as young people who have social and friendship formation, basic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higher education. This study operated Focus Group Interviews for related directors of personnel and analyzed the detail programs'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ions of improving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talented defectors' training are as follows: First, the election policy of program object should be improved.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partnership network and regional cooperation.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on networks and regional partnership, such as local unification education training centers,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s & associations, and local adaptation education centers will be useful. Third is the search for talented young defectors' excellent cases. This requires excellent cases to be selected from divergent programs which are under operation, and it suggests development directions for local education programs and induce positive activities.

**Key words:** North korean young defectors, Excellent talents, Social integration,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투고일 : 2017년 6월 30일 · 심사일 : 2017년 7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25일
--